

Sodium picosulfate/ magnesium citrate를 이용한 대장정결 후 발생한 경련 및 의식저하를 동반한 급성 저나트륨혈증 1예

왈레스 기념 침례병원 내과

조영선, 남경민, 변상환, 박장호, 김현주

Acute Severe Hyponatremia with Seizure Following Sodium Picosulfate/ Magnesium Citrate as Bowel Preparation for Colonoscopy

Young Sun Cho, Kyung Min Nam, Sang Hwan Byun, Jang Ho Park, Hyun Ju Ki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Wallace Memorial Baptist Hospital, Busan, Korea

대장 전처치제로는 polyethylene glycol (PEG) 용액과 sodium phosphate용액 복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magnesium citrate와 sodium picosulfate 복합제(MC-SP) 복용법이 순응도가 높아 그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MC-SP 복용법은 여러 연구에서 그 안전성에 대해 보고되었고 일부 환자에서는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MC-SP 복용 뒤에 발생한 급성 저나트륨혈증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나, 심한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한 경우는 보고된 바 없었다. 저자들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 MC-SP 를 전처치 한 후 발생한 경련과 의식저하를 동반한 저나트륨혈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76세 여자 환자가 개인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경구용 MS-CP 복합제를 복용하고 구역과 구토를 호소하다가 발생한 경련 및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경련의 기왕력은 없었고, 5년 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고지혈증 및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의식은 혼미하였고 지속적으로 구토하는 모습 보였다. 뇌 단층 촬영 및 뇌 자기공명영상에서는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시행한 생화학 검사에서 혈액요소질소 9.6 mg/dL, 크레아티닌 0.6 mg/dL이고, 혈청 전해질은 나트륨 112 mEq/L, 칼륨 2.4 mEq/L, 혈청 삼투압 240 mOsmol/Kg이고 소변 삼투압은 370 mOsmol/Kg으로 저나트륨혈증과 저칼륨혈증이 관찰되었다. 고장식염수(3% NaCl) 로 치료한지 24시간 후 나트륨은 124 mEq/L 으로 증가하였고 48시간 뒤에는 132 mEq/L으로 회복되었다. 이후 구역, 구토의 증상의 호전과 의식 혼탁이나 경련 등의 신경학적 증상도 소실되었다. MC-SP 혼합제의 복용 이후에 의식 변화가 있는 환자에서 저나트륨혈증 발생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저나트륨혈증, 대장내시경, 전해질 장애

Hyponatremia, Colonoscopy, Electolyte imbalance